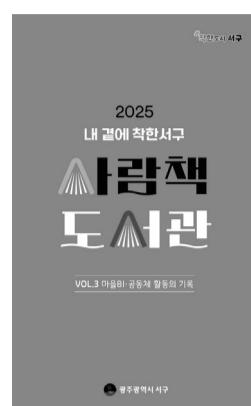


주민이 직접 만들어 온 마을 공동체 성장 과정 공유해요

총간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현대 사회에서 빈발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3동 주민들은 힘을 모아 '모이소 소통방'을 열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중심이 돼 공동텃밭과 공동밥상으로 관계를 쌓았고, 방치됐던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재생하며 '모이소 소통방'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생활 갈등 민원이 30~40% 감소했고, 누적 참여 주민도 1300명을 넘어서며 아파트 생활권에서도 주민 주도의 갈등 예방과 자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풍암동 '늘따순풍임마을 풍두레'는 당초 세 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촛불문화제 주민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권·교육·기후전환을 아우르는 마을자치 공동체로 성장했다.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고민하던 주민들은 인권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교육, 평생학습,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마을 의제로 확장해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까지 설립하며 주민 주도의 전환 모델을 만들었다. 풍두레는 세대 간 소통과 공론을 일상화하며 마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고도화된 생활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 '2025 내 곁에 착한서구, 사람책 도서관 Vol.3' 발간 생활 속 나눔·상생문화 담아… "주민과 행정 잇는 자치 실현"

광주시 서구는 주민이 직접 만들어 온 마을·자치공동체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담은 사례집 '2025 내 곁에 착한서구, 사람책 도서관 Vol.3'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3년간 서구가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정책 흐름 속에서 주민들이 주

제가 돼 기획하고 실천한 다양한 활동을 '사람책'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사례집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구의 제도·정책을 비롯해, 관내 18개 동에서 추진한 마을 BI(Brand Identity) 구축 과정과 분야별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가 연결되며 생활 속 나눔과 상생 문화를 살린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서구는 '내 곁에 생활정보부,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비전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마을의 고유한 정체성과 방향을 정하고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

서구는 이번 사례집을 향후 마을자치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준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의 다정한 연결이 기록으로 남았다면, 앞으로는 이 연결을 확장해 마을과 마을을 잇는 성장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며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관계 중심 자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역사랑상품권 '광주 동구랑페이' 발행

23일부터 할인율 15% 적용

광주시 동구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동구는 오는 23일부터 할인율 15%가 적용된 '광주 동구랑페이' 상반기 발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구랑페이는 지난해 9월 50억 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뒤 단기간에 전액 소진되며 높은 수요를 보인 바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8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하반기 발행 시기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동구는 광주시의 '광주상생카드'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정책과의 연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발행 시기를 설 명절 이후로 조정했다.

설 이후 소비가 위축되는 비수기에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기존 동구 소재 광주은행 영업점으로 한정됐던 판매처는 올해부터 광주 지역 내 광주은행 전 영업점으로 확대됐으며, 50만 원권 선불카드는 42만 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동구는 동구랑페이 가맹점을 상시 모집 중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3523개 점포가 가맹 등록을 마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소비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구랑페이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서구, 19일까지 50명 모집 정책 모니터링·정책제안 등

광주시 서구는 오는 19일까지 여성의 안전과 돌봄, 역량강화에 머리를 맞딪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여단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 기반 제도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서구를 생활권 특성에 따라 '성장하는·살기 좋은·함께하는·행복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양성평등·안전·돌봄·일자리 등 4개 분과에 걸쳐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등을 하게 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부터 2년이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에 관심 있고 월 1회 이상 활동이 가능한 19세 이상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구는 20~40대 청·장년층과 여성친화도시 관련 활동 경험자, 신규 참여자를 우선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서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양성아동복지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vok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분과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남구 지역화폐 동행카드 발매 5일만에 소진

40억 규모…하반기에도 계획

광주시 남구 동행카드가 발매 5일만에 소진됐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한 남구 지역화폐 8580장이 지난달 30일 모두 판매됐다.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40억 원 규모의 동행카드를 발행했다. 50만 원권 카드가 7861장이 판매됐으며, 10만 원권은 611장, 5만 원권은 108장 판매된 것으로

로 나타났다.

남구는 동행카드 인기요인을 15% 구매 할인 혜택과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의 판매 확대, 흥보를 통한 가맹점 3843곳 확보 등으로 꾸몄다.

남구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구 동행카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4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질 좋은 교복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남구·북구, 새학기 교복나눔장터 기증자에 주민참여 포인트 지급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나눔 행사를 잇따라 마련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남구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공원 내에서 '교복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에는 남구 지역 중·고등학교 33곳의 교복 913점이 마련됐다. 재킷과 셔츠, 치마, 바지, 조끼, 생활복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돼 있다.

교복은 1점당 1000원 이상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면 구매할 수 있다.

중학교 교복은 금당중·동성중·무진중·문성중·봉선중·서광중·송원중·승의중·주월중·진남중·호남삼육중·효천중·대성여중·동성여중·동아여중·수피아여중 등 16개 학교 546점이며, 고등학교 교복은 동성고·동일미래과학고·문성고·석산고·송원고·승의과학기술고·인성고·호남삼육고·광주여상·대광여고·대성여고·동아여고·서진여고·설월여고·송원여고·송원여상·수피아여고 등 17개 학교 367점이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남구장학회에 기부된다.

남구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교복과 참고

서 구입 등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복나눔공유센터가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도 5일부터 '상설교복나눔장터'를 열고 본격적인 교복 판매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부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복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왔다.

북구 교복나눔장터에는 북구 지역 34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약 7500벌이 준비돼 있다. 가격은 재킷 5000원, 바지·셔츠·조끼는 각 3000원이며 체육복과 생활복도 구입할 수 있다. 새 마을부녀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형에 맞는 교복을 고를 수 있도록 돋보인다.

장터는 2~3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월 이후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중학교 교복은 금당중·동성중·무진중·문성중·봉선중·서광중·송원중·승의중·주월중·진남중·호남삼육중·효천중·대성여중·동성여중·동아여중·수피아여중 등 16개 학교 546점이며, 고등학교 교복은 동성고·동일미래과학고·문성고·석산고·송원고·승의과학기술고·인성고·호남삼육고·광주여상·대광여고·대성여고·동아여고·서진여고·설월여고·송원여고·송원여상·수피아여고 등 17개 학교 367점이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남구장학회에 기부된다.

문인 북구장은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교복나눔장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